

무악 가면

아스카 시대(592-710)에 동아시아(지금의 중국 본토와 한반도)에서 가면 무용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무도(舞蹈)는 기악(伎樂)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술 형식은 음악과 궁정 무용의 요소가 어우러져 무악(舞樂)으로 진화하면서, 궁정에서 선호하는 더욱 품격이 느껴지는 의식적인 퍼포먼스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무용은 다자이후가 외교와 문화 교류의 주요 중심지 역할을 했던 7~8 세기에 다자이후를 방문하는 귀빈을 위해 선보인 예술이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3 개의 의례용 무악 가면(능왕 가면 1 개와 납증리 가면 2 개)은 13 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무악 가면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전형적인 일본식 가면과는 달리 눈길을 사로잡는 긴 얼굴과 돌출된 코, 솟아오른 눈이 무용에 ‘국제적인’ 특색을 더하고 있습니다. 능왕 가면에는 날개 달린 용이 머리에 올라타 있으며 용의 다리가 귀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